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태도

누군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꼭 방언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방언이 아니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부르짖으며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면 되겠지만, 저에게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기도의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기도를 어떤 테크닉(기술)으로, 의무적으로, 중언부언하며 멋진 말로 한다고 하여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해야 하며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더 예뻐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신에게 겸손히, 솔직히,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더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꼭 부르짖어야 들리나?’, ‘방언 그까짓 거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안 하면 어때?’하며 겸손하지 못한 태도로 주님께 나가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고, 기도를 한다 해도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싶어 하고,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방언기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열심히 하며, 주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성경에 적힌 그대로 크게 부르짖어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왕이 법을 정해 놓았으므로 그것을 잘 따르면 복을 받고 잘 되지만, 불순종하면 안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오직 겸손히 그분의 순리에 순종하고 성경에 적힌 방법대로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왕국에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은 누구라 할지라도 반역자인 것이고, 최초의 반역자는 사탄 마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별것 아닌 것 같은 열매를 따 먹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지만 그 이유로 인하여 에덴동산에서 영원히 쫓겨났고, 온 인류가 주님과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 단어 하나라도 별로 중요치 않다고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왕을 모시는 겸손한 백성의 자세를 취하십시오. 모든 선지자들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말과 방언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무조건 ‘주여 삼창’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주님을 우리의 주로 섬기고, 정성껏 모시고 따르다 보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세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히브리서 5:7)

주님께 나갈 때에는 경건한 자세로 하늘과 땅, 모든 피조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성경말씀 그대로 기도하려고 하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 자세는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 엎드려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고 찬양하는 기도, 회개할 때에는 가슴을 치고, 눈물로 금식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54, 마가복음 6:41, 요한복음 11:41, 17:1, 창세기 17:3, 17). 이런 자세는 율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겸손한 마음에 양심의 법대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고 죄로 인하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울지도 않고, 큰 소리로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지도 않고, 오히려 편하게 누워서도 하고 굉장히 짧게 합니다. 조금이라도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자고 하는 사람은 무릎이 아프더라도 참고, 금식을 하며, 오랜 시간동안 기도하며, 자기 죄를 매일 회개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종교적인 마음으로 나오지 마시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고백하시며 기도자세에 임하십시오.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과 제가 이루어낸 모든 것은 오직 주님께서 제게 몸과 능력과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된 것은 모두 제 자신의 악함 때문입니다. 죄인인 저를

용서해주소서. 저를 다시 세워주소서. 제가 경건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의를 입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시든 안하시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뜻대로 행하소서. 주님께서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는 얼마나 해야 하나?

매 순간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자는 일하느라 바쁘면 새벽에 더욱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점심과 저녁 때 꼭 주님을 찾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면서 가장 바쁜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세 번씩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드리며 금식도 자주 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일 최소의 기도시간을 찾는다면 이미 우리의 마음에는 기도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최대한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걸을 때에도, 일할 때에도, 바쁠 때에도 주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방언기도를 한다면 이것이 더 쉽게 되지만, 이것도 끊임없이 기도하려는 노력이 없이는 오래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듣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은 그런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하루에 다섯 번이나 기도하고, 다른 나라에서 살면서 일하다가도 시간이 되면 매트를 깔고, 심지어는 길 한가운데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진짜 교인인 우리는 더 잘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적인 최소한 기도 시간은 하루에 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6:40-41) 주님께서서는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나무라셨습니다. 그들도 피곤하고 지쳤지만, 주님께서서는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한 시간만 기도하면 된다? 이런 생각은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는 위험한 생각이고, 하루에 최소한 2-3시간을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복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최초 교회들은 모였다 하면 금식과 기도를 자주하였습니다. 실제로 저자가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할 때는 인생이 힘들고 마귀의 공격들과 시험들을 잘 이길 수 없었지만, 2-3시간 이상 기도할 때면 주님의 인도와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절대로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시간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경험상 저에게는 후회할 일들만 생겼고, 그때마다 깊이 눈물 뿌리며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얻어맞은 경험을 통해 아무리 바빠도 절대 하루에 2시간 이하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중한 일이나 힘든일이 있을때에는 예수님처럼 야곱처럼 밤새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를 하셔야 하고 잠을 못 자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온이 올때까지 기도하셔야 응답 받을수 있습니다.

금식을 안 한 그리스도인?

금식은 그리스도인이 기도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이는 금식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성경을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적게 하면 1년에 여섯 번을 금식하였고, 한번 할 때마다 보통 3일 이상씩 하였습니다. 때때로 자신을 더욱 낮추기 위해서나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따로 금식을 자주하였고 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은 나라에 전쟁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집단으로 금식을 시켰습니다. 성경에 유명하다고 나온 모든 이는 금식을 자주 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 엘리야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한번에 40일이나 되는 극심한 금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장 중요한 설교인 산상수훈에서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마태복음 6:6)

라며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같은 방법으로 “오직 너는 금식할 때에...” (마태복음 6:17) 라며 금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은 기도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금식도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금식한다면”이 아닌 “오직 너는 금식할 때에”라며 마땅히 금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모든 결혼할 성도들에게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고린도전서 7:5) 라고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라고 하십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이 금식하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성경의 원본을 바꾸어 보통 성경들의 번역에서 ‘금식’ 이란 단어를 모조리 빼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5절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7:21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귀신을 쫓는 능력과 믿음을 받게 하는 방법인 금식을 빼놓아 버렸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분명하게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라고 ‘금식’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에서도 교묘하게 ‘금식’이란 단어를 빼놓아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개역개정, 개역한글, 새번역,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NIV 등) 라고 써 놓았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금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존재가 들어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능력이 생겨 주님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식을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고린도전서 2:14)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셔야만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금식기도 하는 방법

극악한 니스웨도, 저주받아 마땅할 아합왕도 금식을 하여 주님의 심판을 면하였고, 옹기도 몸에 병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병든 몸으로 금식을 하여 주님의 축복을 맛보았습니다. 금식을 하는 방법은 우선 첫째로 남에게 알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지만 주님과 함께 비밀리에 해야 합니다. 남에게 알리려고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외식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지기 위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머리에 재를 뿌리고 불편한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자신은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재 속에 자신을 앉혔습니다.(요나3:6)

죄 지은 육은 불에 타서 없어질 잿더미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재로 인정하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한 자세를 취하셔야 합니다.

셋째로 세상적인 것과 쾌락을 찾으려 안 됩니다. 이사야 58장은 금식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였으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우리 혼을 괴롭게 하였으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도다. 보라, 너희의 금식하는 날에 너희가 쾌락을 찾으며 너희를 위하여 모든 수고를 강요하는도다. (이사야 58:3) 이때에는 모든 오락을 그치고 좋아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보지 않고 일을 하며 또는 학교에 다니면서도 해야 합니다. 넷째로 금식을 한다고 해서 남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또 금식을 남을 저주하기 위해서, 남과 논쟁을 이기기 위하여 하지 마십시오. “보라, 너희가 금식함은 다투고 논쟁을 위함이요, 사악한 주먹으로 치기 위함이니 너희는 너희 목소리가 높은 곳에서 들리게 하려고 이 날에 하는 것 같이 금식하지 말지니라.” (이사야 58:4) 다섯째 금식을 할 때 다른 이와 다투고 싸워서 안 됩니다. 모든 이를 화평과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람을 될 수 있으면 피하시고 한적한 곳에서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을 피하도록 하십시오. 인터넷도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고, 세상 것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금식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꼭 성경을 한 시간 정도 읽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니 성경을 충분히 읽게 되면 배가 더 이상 고프지 않습니다. 만약 하루를 금식한다면 저녁밥을 드시고 시작하셔서 아침과 점심을 거르고 다시

저녁시간에 드시면 24시간이 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약자는 아침까지만 참으시고 점심을 드셔도 18시간 정도를 금식하게 되니 이것을 며칠 반복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긴 시간동안 금식하게 된다면 힘들 때마다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제발 힘을 주소서!” 그리하면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을 느끼며 오래할 수 있게 됩니다. 3일 이상인 금식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다니엘 금식을 하셔도 건강에 아주 유익합니다.

다니엘 금식은 21일 동안 동물성, 우유, 치즈, 모든 고기 등을 먹지 않고 채식과 과일만을 먹는 금식입니다. 너무 맛있게 드시려는 것도 피하시고 사탕, 설탕, 과자, 쿠키, 케이크, 아이스크림 등 맛있는 것도 피하십시오. 금식은 이 세상적인 쾌락을 버리고 육의 정욕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니 금식에서 미디어를 금식한다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택한 그런 금식이냐?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냐? 그것이 갈대같이 자기 머리를 숙이고 자기 밑에 굽은 벼와 재를 퍼는 것이냐?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 하며 주께서 받으시는 날이라 하겠느냐?”(이사야 58:5) 금식을 우선 혹은 대충하기 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시고 아바 아버지를 간절하게 찾으십시오. 또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말고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금식은 또 흉악을 풀어주고, 마귀도 쫓아내고 자주 하면 악한 습관 등에서 결박당한 자신을 풀 수 있습니다.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곧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 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 주며 학대당한 자를 놓아주어 자유로이 가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이사야 58:6)

금식할 때 나의 것을 남들에게 나누어주고, 가난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을 돕고 씻어주고 그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을 하십시오. 억압당한 자들을 풀어주고, 교도소에 갇힌 자를 방문할 수도 있고, 병원을 찾아가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와 기도를 해주는 것을 할 수도 있으며,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해주어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것 입니다.

“또 그것은 주린 자들에게 네 빵을 나누어 주며 내쫓긴 가난한 자들을 네가 네 집에 들이는 것이 아니냐? 또 네가 벌거벗은 자를 볼 때에 그에게 입히며 또 네가 네 살붙이를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터져 나오고 네 건강이 신속히 솟구치며 네 의가 네 앞에서 가고 주의 영광이 네 후위대가 되리니 그때에 네가 부르면 주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으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네 한가운데서 멩에와 손가락질하는 것과 헛되이 말하는 것을 없애고 네 혼을 이끌어 굶주린 자를 향하게 하며 고난당하는 혼을 만족시키면 네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올라 네 어둠이 대낮같이 되리라.” (이사야 58:7-10)

남을 손가락질하며 비난과 비판, 험담, 남 홍보는 것을 끊는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또한 모든 우울증이나 악한 귀신들이 떠나갈 것이며,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효과를 볼 것입니다. 또 금식할 때 남을 도와주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을 우선으로 하십시오.

“또 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가뭄 속에서도 네 혼을 만족시키며 네 뼈를 기름지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 샘 같으리라. 또 네게서 나올 자들이 오래되고 폐허가 된 곳들을 건축하며 너는 많은 세대들의 기초들을 일으켜 세우리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 라 하며, 거할 수 있도록 행로들을 복구하는 자, 라 하리라. (이사야 58:11-12)

이렇게 남을 도와주면서 하는 금식은 훗날에 나라에 어떤 일이나 가뭄이 온다 해도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해 주실 것이고 또 당신을 들어서 무너진 많은 삶들을 복구하는 훌륭한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방언기도란?

방언기도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신비주의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언기도를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고 해야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6:17절에 언급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방언으로 말하며” 예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영원하고 누구도 깰 수 없습니다. 누구도 지금은 아니라고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요한복음 10:35)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믿는 자”에게 방언의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은사이고 못하는 것이 비정상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라는 것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는 방언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성서의 가르침을 주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양떼들에게 이 놀라운 주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부인하거나, 이 능력을 쓸데없는 것인 양 축소시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방언의 놀라운 혜택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돌아가시기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식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들을 남기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남겨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따른다! 귀신을 쫓고, 방언을 하고, 뱀(마귀를) 쫓고 아픈 자를 치유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버리지 말고, 믿고 따라해야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행전의 성령강림 사건만을 보고 방언은 사람의 말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4장 2절과 4절을 자세히 보시면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영어로는 ‘unknown tongues’ (모르는 방언) 이라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는 다른 방언, 오직 하나님 밖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방언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나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느니라.” (마가복음 14:2) 분명히 이 언어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나가서 하나님께만 말을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방언입니다. 방언 은사의 종류는 단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에는 여러 종류의 방언들을...”(고린도전서 12:10) 이렇게 여러 종류의 방언들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 말도 있고 천사의 방언도 있고(고린도전서 13:1) 하나님에게만 올리는 방언이 있습니다. 만약 알지 못하는 방언이 사람의 언어라고 한다면 방언 통역의 은사가 필요 없고, 그 언어를 배우면 되거나 그 나라 말을 하는 사람을 데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언 통역 은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방언은 주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것이고 주님께 영의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어찌하리오.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고린도전서 14:15) 바울은 바로 영으로(방언으로) 기도하고,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도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무시하는데 절대 말씀 앞에서 마음이 굳어져 교만해지지 마시고 겸손히 이 말씀을 순종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받기 싫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단의 거짓된 생각을 듣는 것입니다. 방언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 안에 숨어있던 교만이 있었기 때문이지 결코 방언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식이 교만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1). 그렇다면 지식도 배우지 말아야 할까요? 돈도 물질도 명예도 능력도 어떤 것이든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하기 위해서 배우지도 말고 돈도 벌지 말고 가난하게 살면서 있는 능력도 사용하지 말아야 할까요? 방언만을 가지고 교만하게 된다고 받지 않겠다는 것은 엉터리 논리입니다. 방언을 받기 이전에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높이 올라가면 교만해졌을 사람입니다. 방언을 하게 되면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령이 자신의 모든 필요한 것들, 모자란 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만을 없애주실 기도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고린도전서 14:4)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뜻은 영어로 edify 한다는 뜻으로 나를 더욱 좋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든 주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나쁜 점을 고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주님의 지혜를 받게 됨으로써 많은 점들이 개선됩니다. 소극적인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바뀌고, 지혜가 모자라던 사람이 지혜롭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비밀들을 깨닫게 되고 능력이 없던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님을 강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성도들을 위해 방언으로 중보기도를 해 줄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위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6-28)

주님께서 방언을 주신 목적, 즉 주님의 뜻에 따라 방언기도를 하게 되면 당신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게 되며 당신의 삶이 주님께 헌신될 수 있고, 주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방언은 우리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며, 죄악과 탐욕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바꿀 수 있는 파격적인 방언의 능력을 숨기기 원하며 방언을 사용하지 않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침례를 받은 자에게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게 한 은사가 방언은사입니다. 이것은 방언기도가 제일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이 은사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받기 원하시는 이 은사를 받으려고 하셔야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별 필요도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을 쓸데없이 시간낭비 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은 제일 좋은 것을 처음부터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일 좋은 나의 몸과 생명을 값없이 주셨으며, 제일 좋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희생물로 주셨고, 더 나아가 제일 좋은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방언은 너무나 좋은 것이며 우리의 무의미한 삶을 주님께 쓸모 있는 주님의 자녀로 바꿔놓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고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열리고 지혜와 능력들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의 생각들이 임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없었던 담대하고 거룩한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더욱 강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유다서 1:20)

성경학자들이나 성령의 은사를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리 사랑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도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이 최고이고 방언은 쓸데없고 이미 사라진 것이라고 우깁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예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방언은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고린도전서 13:8) 이 구절을 가지고 방언이 그쳤다고 하지만, 언제 그칠 것이라는 시간대를 잘 보시면 바로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고린도전서 13:10) 라고 이 ‘완전한 것’ 이 와야 그칩니다. 이 ‘완전한 것’ 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래의 1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이 완전한 때는 주님과 얼굴을 마주 보고 대할 때입니다.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모든 것을 / 주님을) 알리라” 지금 누가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주님을 알고 모든 것을 압니까? 바울은 그 누구보다 많은 성경의 깨달음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부분적으로” 밖에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지식이 가득한 때는 바로 이사야서 11장 6-9절의 예수님께서 지구에서 왕으로 군림하는 때입니다. “이리도 어린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 뎀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바로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한” 때가 완전한 때입니다.

지금은 절대로 완전한 때가 아닙니다. 무엇이 완전합니까? 아직도 육의 몸 안에서 죄악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세상에는 죽음과 고통과 병이 있고 완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한 것’이 온다는 것은 바로 사랑이신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때이고 온 지구가 주님의 지식으로 가득할 때에 더 이상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의 은사 같은 것이 필요 없게 되는 때입니다.

지금은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7) 바로 지금이 열심히 기도하여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야 할 때입니다. 세상 때문에 바쁘시다면 전화기를 꺼버리시고, 친구들을 끊으시고, 세상 사랑을 끊으시고 주님께 금식하여 방언기도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방언 은사/ 성령의 은사를 받는 방법

제가 방언을 받은 경험이나 제가 가르쳐 주어서 방언을 받은 분들은 모두 금식 기도를 하여 받았습니다. 매주 하루 정도를 금식하고, 한 달 정도 거룩히 세상의 것을 등지고 주님을 열심히 찾는 자들은 누가 굳이 기도를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방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언을 오랫동안 열심히 구하여 받은 자들은 주님과 관계도 그만큼 더 깊어지고, 그 방언을 아끼고 잘 사용하게 됩니다. 오히려 남이 기도해주어서 쉽게 방언을 받은 자들은 주님을 열심히 찾아서 만난 체험이 그만큼 없어서인지 사랑도 쉽게 식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큰 은사들도 마찬가지로 금식기도를 하셔야 하고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받을 때까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도중에 ‘난 못 받는가 보네.’ 하며 하차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고린도전서 14:5) 고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니 여러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받을 수 있다.’ 하고
담대하게 문을 두드리십시오.

방언기도는 어떻게 사용해야하나?

한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방언기도를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물론 바쁜 와중에 틈틈이
계속해서 방언기도를 할 수 있지만, 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집중적으로 방언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 한적한 곳, 즉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도 방 안에서 문을 닫고 주님께 비밀로
기도하십시오. 방언 기도할 때에는 마음에 생각이 비어 있기 때문에 먼저 성령님께서서
인도하시는 생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방언 기도를 하다가 어떤 말이 생각날
 때에는 말로 기도하면서 또 말이 멈춰지면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면서 방언기도를 해도 되고, 저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방언을 큰소리로 해도
됩니다. 방언기도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주님께 말을 하면서 해도 좋습니다. 다른 일을
하는 중에 방언기도를 할 때에는 좀 더 크게 기도를 해야 멈추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음성으로 하게 되면 금방 잊고 방언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방언도 부르짖으며, 집중하여 큰소리로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데
한 두시간을 넘어가면 불이 나는 것 같이 뜨거워지기도 하며, 땀이 나기도 하며,
얼굴에 기름이 흐르는 것 같기도(어노인팅) 합니다. 물론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방언은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다.’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니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크게
부르짖으며 하십시오.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야고보서 5:6) 집안에 혹은 근처에 사람이 있어서 방해하기 싫다면 상자 하나를
마련하여서 거기에 두꺼운 옷들이나 담요 혹은 이불을 넣고 상자 안에 입을 대고
부르짖어 기도해도 방음이 잘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무릎을
꿇고 침대에 얼굴을 대고 두꺼운 이불로 둘러싸고 기도하셔도 방음이 잘 됩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히브리서 5:7-9) 여기에서 순종하기를 배우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순종하여 부르짖음과 눈물로 애통해하며,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언기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하고 닮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아들이라면 이렇게 주님을 따라하고 닮아가도록 합시다.

제가 아는분중에 집이 팔리게 해달라고 1년 반이나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되지않아 마음에 크게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길래 제가 그분에게 방언기도를 하루종일 쉬지말고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정말로 그렇게 하셨고 바로 그 다음날 어느 사람이 사겠다고 돈을 약속하고 갔고 또 바로 그 후에 3명이나 집이 아직있냐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방언은사를 가지고 계셨지만 잠시잠시 화살기도를 하기만 하고는 오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큰일이 있을때마다 방언기도를 하루종일 쉬지않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때까지 기도하여 많은것을 응답 받았습시다. 모든것을 꼭 이렇게 쉬지않고 방언기도 해서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할 것들

간단하게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기도문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나의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성직자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입니다.

하늘을 침노하는 기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12)

예수님께서서는 히브리서 5장 7절처럼 굉장히 힘겹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목사들 사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도를 예수님께서서는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왜냐고 따지기보다 우리는 이것을 모범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본보기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도 밤새 기도하셨고 앞으로 구원될 자들을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히브리서 7:25) 기도는 실존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다니엘이 금식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21일 만에 와서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네 마음을 정하여 깨닫고자 하며 또 네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을 징계하기로 한 첫날부터 그분께서 네 말들을 들으셨나니 내가 네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의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느니라....” (다니엘서 10:12-13)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었어도 응답이 늦게 오거나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페르시아 왕국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그쪽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 통치자가 가브리엘 천사를 결박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으니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기도로 싸우라고 일러줍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에베소서 6:12,18) 여기에서 얘기하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이 실제로 영적인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기려면 지지 않고 금식과 예수님과 같은 뜨거운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에 미국정부에서 제가 하던 비즈니스를 집어 치우라고 벌금을 물수도 있다는 몇 십 장되는 편지가 왔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뭣 모르고 시작했던 것이고 그 당시 그것이 유일한 돈 버는 희망이었기 때문에 주님께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주님을 따라서 록밴드도 그만두었고 장사를 하는데 저는 어찌하란 말입니까?” 하며 밤새 방언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새벽 4시정도까지 그렇게 기도하다 잠이 들었는데 천국을 꿈꿨습니다. 금빛 하늘에서 물결 같은 금이 폭죽을 터뜨리듯이 사방에서 내려오는 모습, 금색 밝은 잔디 위 같은 곳에 제가 서 있었는데 제게 그 금 같은 물결, 주님의 영광 같은 것이 제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어나보니 꿈이었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두 시간을 더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하고 부르짖고 제 방에 있던 작은 의자 같은 소파를 잡고 소나무를 뺨듯이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밖에 차에 갔는데 하늘을 보니 구름이 커다란 십자가가 되어 제 앞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것은 비행기가 만든 게 아닐까?’ 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거기에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그 구름 두께보다 너무 작았고 옆에 태양을 보는데 태양조차 십자가 모양으로 빛을 내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 후로 더 이상 미국 정부에서 다른 편지를 보내지 않아서 계속 저는 비즈니스를 하였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특히 집단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도 효과가 큼니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야고보서 5:16) 예전에 아픈 자를 위해서 있는 힘껏 부르짖고 기도해 주었을 때, 그렇게도 많은 구름이 꺾었던 하늘이 맑아지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한번은 예수님을 잘 안 믿는 분들과 플로리다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일주일동안 계속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차로 운전하여 여행을 가는데 빗줄기가 아주 세차게 내려서 저는 차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구름아, 가라! 천사 천군아, 오너라! 구름을 몰아가라!” 하며 정신 나간 사람처럼 몇 번씩 소리 질렀습니다. 차안에 있던 분들이 무안해 할 정도로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간 구름사이로 구멍이 생기며 빛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저희가 여행하는 동안 내내 땡벌에 구름 한 점 없었으며 이를 있다 삼일 짜

돌아오는 날에 다시 구름이 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행을 같이 갔던 한 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신기한 체험을 하였고,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는 꿈도 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고 따라하면 비슷한 것을 체험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기도 리스트 만들기

저와 몇몇 분들이 함께 기도하여 아내를 얻게 되었는데, 이것은 소망하며 원하는 기도 리스트를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목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목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 (하박국 2:2-3) 물론 주님을 먼저 섬기지 않고 이렇게 기도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우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차원에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